

80년 5월21일 금남로 기록물 입체적 재현 518기록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3일 개막

금남로 집단발포 공간·시간적 재해석... 내년 3월 1일까지 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12월 3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3층 기획전시실에서 개관 10주년 기념특별전 '1980년 5월 21일, 금남로를 보았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1980년 금남로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기록관의 역할과 위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에서 발생한 집단발포의 맥락을 공간적·시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고, 아카이브가 지닌 본질적 의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프롤로그와 3개 섹션으로 이루어진다. 프롤로그는 '금남로'라는 공간과 '1980년 5월 21일'이라는 시간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당시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시장에는 전남도청, 분수대, 시계탑을 중심으로 상무관, 전일빌딩, 가톨릭센터, 광주YMCA, 광주관광호텔 등이 당시 모습에 가깝게 재현돼 금남로의 장소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1부 '1980년 5월 21일 금남로'는 1980년 5월 20일 오후의 대규모 차량시위와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광주역 발포 이후 금남로에 모여든 시민들의 움직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된다. 이와 함께 계엄군의 담화문·경고문, 시민들의 꺾기문, 김영택·조성호 취재수첩, 장재열 메모 등 당시 기록물을 전시해 5월 21일의 상황을 다층적으로 조망한다.

제2부 '금남로 기록의 교차'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의 실제 모습을 담

은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맥락을 살핀다. 2018년에 공개된 기록관 발굴 영상은 군·경 뒤쪽에서 촬영된 시신을 보여주며, 올해 새로 수집된 자료는 시민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두 영상의 교차하는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제3부 '금남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아카이빙 과정과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주목한다. 새롭게 발굴된 기록들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억을 축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사건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 있는 역사로 재해석하도록 이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이라는 과제를



넘어, 광주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으로 구성됐다.

올해 기증된 차명숙 컬렉션, 장식의 오월일기, 문제성 영상 관련 자료도 이번 전시에서 함께 공개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기록은 사건을 증거할 뿐 아니라 기억의 매체로서 과거를 재현하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 성격과 의미가 더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전남도, 세계인권선언 77주년 맞아 특강·공모 우수작 전시

9~17일 도민인권증진 문화행사... 일상속 인권 친화분위기 조성

전라남도가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인권 특강, 인권공모전 우수작 전시회 등 '2025 도민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연다.

10일 인권특강에는 각종 방송 출연과 강연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 전문가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심용환 강사가 '한국 근현대사속의 민주주의 인권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한다.

심 강사는 우리 사회에 이어져온 한국적 인권 전통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오늘날 마주한 차별·불평등·노동·젠더·세대 갈등 등 현대적 인권 문제를 함께 짚어볼 예정이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2025 전라남도 인권공모전 우수작'과 '세계인권선언문 테마'를 전시한다.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는 전남도 동부 지역본부 섬진강홀에서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차별없는 OK 전남, 함께 그리는 사회'를 주제로 실시한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포스터 최우수상 '당신의 편견 AI도 배웁니다' ▲학생부 포스터 최우수상 '조각조각 하나의 우장' ▲동영상 최우수상 '농어촌의 인권, 함께 돌보는 기본의 가치' 등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인권특강 참



여 신청은 행사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인권문화행사가 도민에게 세계인권선언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사회에 인권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마련해 인권 친화도시 전남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권의 날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 날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전혜경 기자

겨울빛 가득한 담양 메타랜드, '담양산타축제'로 물든다

제7회 담양산타축제, 크리스마스이브·당일 메타랜드 일원서 열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오는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메타랜드 일원에서 겨울 감성과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제7회 담양산타축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담양산타축제의 슬로건은 '우리 누군가의 산타'다. 군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따뜻한 겨울 분위기를 전할 계획이다.

축제의 주무대는 메타세쿼이아길 내 메타광장에 꾸며졌다. 24일에는 담양 어린이들의 캐럴 공연을 시작으로 임창정, 왁스, EDM DJ 등 크리스마스이브 공연이 진행되며, 25일에는 노이즈와 지역예술인의 무대가 이어져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다채로운 체험도 준비됐다. 어린이프로

방스에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화로대에서 마시멜로우, 옥수수 등 간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릴하우스를 운영하고, 축제장에서는 LED 조명등 만들기, 킴링 만들기 등 여러 체험을 제공한다.

20명의 산타가 축제장 곳곳을 누비며 미니게임과 포토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축제장 전역에는 겨울 분위기를 담은 야간조명과 포토존을 설치했다. 입구의 대형 별 조명을 비롯해 산타 액자, 눈사람 조명, 대형 트리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순간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는 판매 공간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길 입장권을 환급 상품권으로 제작해 방문객들이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를 구매하며 지역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담양산타축제

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준비했다"며 "연말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양에서 특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교육청, '제19회 전남초등교원미술작품전' 개최

12월 5~10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서예·사진 등 75점 선보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2월 5~10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 예술이 되다'를 주제로 제19회 전남초등교원미술작품전을 개최한다.

전남초등미술교육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전라남도 초등학교의 미적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전남 지역 초등교원들이 창의적 감성과 예술적 역량을 담아 제작한 총 75점의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서예, 서양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교원이 경험한 예술적 탐구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줄 전망이다. 개막식은 12월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시가 교원의 예술적 경험이 수업과 학교예술교



육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국민 내로물 밖 당국에서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